

전남 '블루 이코노미' '확대된다'

농축산업·해양수산 추가5+2 프로젝트 추진
전남발전 비전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 예정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가 세부적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등 확대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전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이 5대 프로젝트에서

2대 프로젝트가 추가된다.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Blue Energy)',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Blue Tour)', '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Blue Bio)', '미래형 운송 기기 산업 중심, 전남(Blue Transport)',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 시티(Blue City) 등 5대 전략 프로젝트

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농도'와 '수산도'를 감안해 농축산업과 해양수산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해양쓰레기 제로화 등 블루 이미지에 맞는 구체적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이미 제시된 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세부 12개 사업에,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 관람객 즐겁게 하는 수리·달이 트 수리·달이가 관람객을 즐겁게 하고 있다. 23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여자부 20m 하이다이빙 경기가 펼쳐지기 앞서 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가 관람객을 즐겁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 '백년가게' 4곳 추가 선정...10곳으로 늘어

광양 대한식당·함평 전주식당·강진 호남종묘사·장흥 에펠제화 등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광주·전남지역의 백년가게가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해 시행 중인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 2차

사업 업체'에 전남지역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는 지난해 처음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되던 이어 올해 1차로 3개 업체, 2차로 4개 업체가 선정되면서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정된 업체는 대한식당(광양시), 전주식당(함평군), 호남종묘사(강진군), 에펠제화(장흥군) 등이다. '대한식당'은 수년에 걸쳐 자체 양념비법을 개발해 차별화된 광양식 불고기 등을 제공하고 있는 37년 업력의 광양식 불고기 전문점이다.

유명 맛집으로 이름난 '전주식당'은 함평에서 40년 이상 전통방식으로 조리한 생고기 비빔밥을 2대째 판매해 오고 있다. 농업관련 용품 판매 업체인 '호남종묘사'는 높은 전문성과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농약 소매점이다. 수제화 전문업체인 '에펠제화'는 대기업 브랜드 확산 속에서 자급심과 뛰어난 품질로 수제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31년 전통의 구두 소매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6월부터

시행해 온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홍보해 매출 향상을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의 우대보증과 정책자금 금리도 0.4%p 우대한다. 최근까지 선정된 백년가게는 '백년가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년가게 선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23일 하계방학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무역전쟁의 부당함을 알리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광주 일선 고교 "일본제품 쓰지말자"

광덕고 이어 광주제일고도 불매운동 동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 회복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광주제일고 학생회는 23일 하계방학식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무역전쟁의 부당함을 알리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서은상 학생회장은 "고등학생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생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앞으로 무역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회에선 일본 아베정권의 태도가 변하기 전까지 SNS 등을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제안하는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광주제일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본음료 3가지에 대해 개선될 때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역사동아리 학생 20여명은 24일부터 1박2일동안 서울 일본대사

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등 우리역사 바로 알기와 평화통일 기원 역사기행을 실시기로 했다. 앞서 광주 광덕고도 지난 17일 교내 태극기 상설전시관 앞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 150여명이 참가했다. 불매운동은 긴급 학생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학생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또다른 학생들은 일본제품을 아크릴 박스에 담아버리는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학용품보다 국산 구입, 일본 음식보다 한국음식 먹기와 부모님에게 적극 알리기, 태극기 상설전시관 수시방문 등의 실천사항이 담겼다. 조인호 기자

무안 **제23회** The 23th Muan Lotus Festival

연꽃축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2019. **7.25.(목)** ▶ **7.28.(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 주관 : 무안군 /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